

보도시점 2026. 9. 7.(월) 13:00 배포 2026. 9. 7.(월) 10:00

소상공인 애로 청취 및 추석 전 물가점검 위해 민생현장 방문

- 분야별 소상공인 단체장들 만나 경영 애로 및 정책 건의 청취
-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전통시장 방문
- 금주 중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, 공급 확대 등 「추석 민생안정대책」 보완 방안 확정·발표 예정

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9.7(월) 10:00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연합회, 소매·서비스·제조업 등 분야별 소상공인단체장*과 간담회를 주재하였다.

* 소상공인연합회,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참석

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·자영업 현장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와 정책 건의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이 차관은 “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함”을 강조하며, “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이어 이 차관은 서울 까치산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및 「추석 민생안정대책(9월1일 발표)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. 정부는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하여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.3만톤(평시의 1.6배) 공급하고, 역대 최대인 1,03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. 또한 9.16-20일 기간 동안 농축산물·수산물 각 300개에 대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약 30%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2만원까지 현장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이 차관은 까치산시장의 주요 점포들을 방문하여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한 채소류 및 과일류와, 정부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%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고등어·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등에 대한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하였다. 이 차관은 “정부는 추석 성수품 확대공급과 할인지원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하면서 “이번 주 중 농축산물 할인, 수산물 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「추석 민생안정 대책」 보완방안을 확정·발표하겠다”는 계획도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임혜영 (044-215-28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종성 smilekorea@korea.kr
담당부서	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양윤영 (044-215-2820)
		담당자	사무관	박창규 ckpark0916@korea.kr
담당부서	민생경제국 민생안정지원단	책임자	팀 장	심상진 (044-215-2870)
		담당자	사무관	황지현 sk12@korea.kr

